

“너희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에반이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란다의 원칙을 읊는다. 정말 길었던 싸움이었다. 참 귀신 같은 자들. 분명히 심증은 확실했지만, 그 어떠한 물증도 없어서 더욱 제 머리를 아프게 한 자들이었다. 바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한 걸음 내딛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러던 와중 그러한 에반에게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말을 하던 덕.

“그럼 내가 도와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 사람과 자신의 본질이 같은 것을 알고 있다. 그 공통점은 두 남자를 가깝게 하는 우정의 연결 고리가 되었지만 어떻게? 덕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한 편으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역시 이 썩은 도시에 질리긴 했지만 둘이 걸어가는 길은 달랐다. 하지만 덕은 자신의 길에 거침이 없었다. 어쩌면 덕이 자신을 선택한 것은, 그 자신의 이상향을 위한 의도적인 접근이 아닐까. 아무리 개인이 바꾼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공권력이 나서지 않는 한 이곳의 무고한 시민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딕의 생각을 보여준 것 같았다.

“곡예사에게 꼭 필요한 재능이 뭔지 알아요?”

“글쎄. 유연성?”

“아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렇게 웃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딕을 다시 재회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제 집의 창문을 두들기던 딕.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 선물이 될까요?”

에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애초에 자신이 있던 고아원 원장의 성격이 그렇게 다정한 성격도 아니었고 게다가 ‘똑똑한 척하는 새끼’에게 선물을 줄 정도로 다정한 친구도 없었다. 저 역시 따로 선물에 의의를 두지 않았다. 허나 딕이 준 것은 정말로 산타의 선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썩을 대로 썩은 이 곳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가져온 각종 증거들. 아무리 비리에 익숙한 블러드헤이븐에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증거가 나온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보자 에반은 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류에 남아 있는 흔적들. 그곳에 묻어나는 피들은 이것들을 챙겨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에반은 덕이 가져온 증거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저 역시 이 자들은 아무리 자기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환멸 나는 인간들이었으니.

그 후로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영장을 받고 죄수들을 잡고 그들을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세웠다. 블러드헤이븐을 고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자들을 굳이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어쩌면 덕의 선물에 대한 보답인지도 모르겠다. 에반은 볼 수 있었다. 포토라인을 찾아 온 기자 중 기자인 척 하는 덕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조사가 끝나고 에반이 서를 나오자 덕이 웃으면서 에반을 반긴다. 그 미소를 보자 살짝 묘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농담도 많이 해서 가벼운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건 사실이었다. 세상을 고치겠다는 말, 입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하지만 덕은 입만 가벼운 일반 사내와는 달랐다. 적어도 자신이 내뱉은 말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게다가 이번 일로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지 모른다고. 확실히 덕은 어둠 속에서 일하는 것에 능숙해 보였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지만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많기에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에반이 서를 돌아본다. 위층 창문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한 잔 할까?”

“좋죠.”

굳이 여기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었다. 괜히 여기에 있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펍으로 향했다. 확실히 위험한 동네네임을 보여주는 듯 펍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카운터에 앉아서 지루한 표정으로 채널을 돌리고 있던 주인은 두 사람이 들어오자 반가운 표정을 짓는다. 덕이 능숙하게 술과 안주를 시킨다. 주인은 냉장고에 걸린 자물쇠를 풀고 나서야 술을 꺼낼 수 있었다.

“그럼 우리의 첫 승리를 위하여.”

딕이 병을 에반에게 내민다. 건배라는 것을 딱히 한 적은 없었지만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었기에 에반도 딕의 병에 가볍게 병을 부딪친다. 어쨌게 보면 거의 생애 처음 느끼는 승리 아니던가. 가끔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쩌면 그날 총에 맞은 것은 부모님 뿐만 아니라 자신일지도 모르겠다고. 어머니 머리에 박힌 총알 위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날 그 총알의 파편이 제 머리에도 박힌 거 아닐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확실히 제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결여된 것을 느끼고 있었다. 따로 무언가를 느끼지도 못했다. 어릴 때 혼자서 곤충의 박제를 보았을 때가 생각난다. 지금 와서 그 박제품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꼭 자신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새 들어 종종 들기도 했다. 그러한 에반에게 있어서 딕은 참 신기한 사내였다. 스스럼없이 제 옆에 다가온 사람. 솔직히 처음 보았을 때 지나칠 정도로 밝은 것은 아닐까 싶었다. 무엇보다 살면서 처음이었다. 자신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은. 여태껏 서 내에서도 동료는 있었지만, 면식이 있었을 뿐 공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뭔가 낯설었다. 일이 끝나고 누군가와 저녁시간을 같이 한다는 게.

에반이 조용히 술을 훌쩍거리고 있을 때 딕은 그러한 에반을 주시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눈빛. 딕은 알 수 있었다. 오늘

일로 두 사람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살짝 마음에 걸린다. 자신이 한다고 했을 때 머뭇거리던 에반의 모습을.

원래 그 자신의 성격도 이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보니 자기도 결국 이 도시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타인을 믿는 것.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이 있을까. 에반이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여타 다른 경찰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지만...그래도 확실히 해야 한다. 자신의 상대는 이 도시이지 않던가. 애초에 이 도시가 세상에 나타난 지옥이 된 것도 눈을 가린 공권력 때문이지 않던가. 자신이 겨우 잡아 넣은 자들. 그 자들이 또 어떠한 술수를 부려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머리를 굴려야 했다. 이 사람이 정말 그와 함께 걸어갈 사람일까, 아니면 같이 걷는 척하며 함정으로 인도할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어떻게 한담...’

딕이 혼자서 생각하고 있을 때 때마침 텔레비전에선 서커스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에반을 슬쩍 본다. 부모님에게 미안했다. 자신이 설마 부모님까지 이용할 줄은.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부모님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애초에 자기가 세상을

고치려고 한 계기도 부모님의 죽음이 큰 원인이니.

“아 서커스 광고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게”

에반이 술을 내려 놓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딕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보니 저번에 곡예사에 대해서 말 하지 않았던가.”

“네, 맞아요. 저희 집안 꽤나 유명했거든요.”

“했거든요?”

“... 돌아가셨어요.”

딕이 씩씩한 미소를 짓는다. 평소와 다른 딕의 표정. 에반은 꼭 거울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 말에 담긴 그 씩씩함은 자신이 무척이나 잘 아는 것이었다. 왜 딕이 무모할 정도로 이 도시를 고치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지 알 것 같았다.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찰나지만 에반은 딕의 표정을 보았다. 뭔가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에반은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어떠한 각오가 담긴 듯한 그 눈빛. 그 눈빛의 원인을 찾은 듯 했다.

“나돈데.”

에반이 대꾸하자 덕의 눈이 커졌다.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어머니가 총알에 맞았던 그 위치가. 그리고 목이 아파온다. 아버지 목에 난 상처와 동일한 부근에서. 말을 하면 할수록 이 펴는 그 어두운 저택으로 바뀌고 있었다. 자신이 앉아 있는 곳은 테이블이 아니었다. 어둡고 차갑고 그리고 축축한 바닥. 그리고 제 무릎에 누워 있는 어머니.

“나도 돌아가셨어.”

이 도시에서 부모를 잃었다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 일지도 모르겠다. 자신이 머물렀던 고아원도 개미굴처럼 아이들이 바글바글했던 것이 기억난다. 에반이 고개를 들어 덕을 본다. 덕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덕의 눈동자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은 성인이 된 지금이 아니라 어린시절, 눈 앞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로. 미묘하게 바뀐 에반의 눈빛은 덕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덕은 마냥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무척이나 인간적이었고, 또 다정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왜 그러한 말을 꺼냈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 정도였다. 괜한 사람을 의심한 것 같았다. 에반은 곧 옆에 있는 병을 잡았다.

“같은 과거를 지닌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네. 고마워.”

에반이 맥주를 마시기 전 한 마디 더한다.

“덕분에 처음으로 과거에 대해 말 할 수 있었어.”

“죄송해요…. 나는 그게….”

딕이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보면서 왜 딕이 경찰 일을 못하는지 조금 이해가 갔다. 이렇게 표정이 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경찰 일을 할까.

“아니 괜찮아. 덕분에 조금 후련하기도 하고.”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다. 왜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상담사를 찾는지. 누군가를 만나는지 조금 이해가 갔다.

“저 손님들, 슬슬 가셔야 할 거 같은데요.”

주인이 와서 시계를 가리킨다. 확실히 시간이 조금 지났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에반이 계산을 하고 나온다. 확실히 밤이라 그런가 거리엔 길고양이 하나 없었다. 바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더 있으면 안될 거 같은데요.”

“그러게, 그럼…”

에반이 먼저 덕에게 악수를 청한다. 덕이 그 손을 받는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두 사람이 그렇게 악수를 나눈 뒤 각자 집으로 향한다. 에반이 걷다가 하늘을 본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부모님이 총에 맞을 때 창문에 비추던 달이. 그날 이후로 달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달을 제대로 보는 것만 같았다.